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 18일 ‘팡파르’

‘위대한 유산, K-소리’ 구례에서 울려 퍼지다

전남 구례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시천 체육공원과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위대한 유산, K-소리’를 주제로, 동편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장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구례5일시장에서는 풍물놀이와 마술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19일 저녁 7시에는 ‘구례의 소리 I’ 무대를 통해 지역 명창들이 공연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개막제에서는 줄판대 신동 남창동의 줄타기 공연으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명창들의 진한 판소

리와 함께 주제공연 ‘위대한 유산, K-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단의 창작무 ‘학춤’, 김상연의 대금산조 공연 등 전통과 창작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가 마련된다.

피날레에서는 성악가 신문희가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가 전 출연자들과의 대합창으로 이어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100여 개의 경품 추첨이 준비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판소리 무대가 마련돼 관람객들이 동편제의 역사와 매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녁에는 신예 소리꾼과 구례꿈나무동편소리 합창단이 참여하는

‘차세대 K-소리’ 무대가 이어지며, ‘구례의 소리 II’ 젊은국악인&명인명창전에서 명창들의 판소리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울림설장구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함께, 국악인 김나니와 미스트롯 출신 정미애의 특별 초청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최성현 구례동편소리축제 추진위원장은 “구례는 동편제의 뿌리이자 우리 전통 소리의 보향”이라며, “이번 축제가 동편제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꽃피우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5 구례동편소리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구례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우



리 소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하나 되어 전통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구례의 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재)담양군문화재단, 2025 담빛 파크콘서트 개최
가을밤 물들일 최정상 뮤지션들, 19일 ~ 9월 20일 담빛음악당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2025 담빛 파크콘서트’를 오는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담빛음악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담빛 파크콘서트’는 자연과 음악,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는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국내 최정상 뮤지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이를 동안 전혀 다른 색채를 지닌 프로그램들로 구성해 관객의 기대감을 높인다.

첫날인 19일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한 그룹 라벤타나가 무대에 올라 관중적이고 세련된 뎅고의 매력을 선보인다. 이 무대에는 클래식과 팝이 융합된 보컬리스트 호란이 함께해 폭발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20일에는 한국 블루스 음악을 대표하는 뮤지션 강하달림이 무대에 올라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 부문에 선정된 싱어송라이터 강아술이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양일간 ‘담빛버스킹데이’ 입선자들도 공연에 참여해 신예 뮤지션들의 패기 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라벤타나와 호란의 무



대, 강하달림과 강아술의 깊은 감성까지, 이를 동안 전혀 다른 매력의 무대를 준비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 담양의 가을밤을 특별한 음악으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빛 파크콘서트’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티켓링크와 네이버폼을 통한 무료 사전예매가 진행된다. 사전 예약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돛자리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하며,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약방법은 재단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 실무보고는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년 나주시(時)니어 제1회 내 마음에 시 한 줄 공모전’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나주시 거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화사업이다. 평소 문화·예술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삶의 순간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 나주시(時)니어 ‘제1회 내 마음에 시 한 줄’ 공모전

시로 담는 나의 이야기... 만 65세 이상 누구나 참여

응모 주제는 ‘가족’ 또는 ‘감사’ 중 하나이며 형식은 운문(시)이다. 작품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는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http://naju3362112.kr>, 문의 336-2112)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입선 6

명을 선정한다. 상금은 ▲대상 30만 원 ▲최우수상 20만 원 ▲우수상 각 10만 원 ▲입선 각 5만 원이며 나주시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모전이 어르신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시로 담아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2025년 나주시(時)니어 공모전 내 마음에 시 한 줄

응모 기간: 2025년 09월 01일(월) ~ 09월 30일(화)

- 응모대상: 나주시 지역사회의 65세 이상 어르신
- 응모방법: 구별, 방문, 우편 접수
- 시상내역: 대상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입선 5만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래)는 가을을 맞아 양림동 팽귤마을 공예거리에서 시민 참여형 예술 축제인 양림수작(手作) 주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양림수작 주말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문화 축제로, 양림동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오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이 기간 양림동을 방문한 탐방객들은 예술 공연을 비롯해 공예 체험과 플라미

광주 남구, 주말 예술 축제 ‘양림수작’ 개최

공예거리 일원에서 ‘즐거운 가을 나들이’

켓, 인형 포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남구는 축제 기간 양림동 공예거리 일원에서 스트리트 댄스와 국악 가요, 성악 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진행한다.

또 공예품 판매 부스를 마련해 공예 작가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공예거리 입주 공방과 외

부 공예 업체 등 20개 업체가 참여하며, 공예품 판매 부스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도자와 금속, 가죽, 비누, 천연 염색, 섬유 등 다방면의 공예품을 관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공예 작가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예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임채일 기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열어, 체험비는 재료를 포함해 1~2만원 수준이다. 각 부스에서는 현장에서 체험 결과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10명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축제 현장에서는 남구와 자매우호 도시 결연을 맺은 전남 영광군과 장흥군, 완도군, 전북 임실군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양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근대역사문화 마을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고흥군, ‘가을향기 나는 도서관’ 특별프로그램 운영

북토크·월데이 프로그램·가을 북크레이션 등 독서의 달 맞이 행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을향기 나는 도서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상상력이 담긴 다양한 월데이 프로그램과 작가 초청 ‘북토크’ 강연으로 구성됐다.

특별 프로그램의 주제는 ‘가을향기 나는 도서관’으로, 3개 공공도서관 자료실에서 ‘가을(秋)’과 관련된 도서를 전시(Book Curation)하는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을 독서를 제안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중앙도서관(고흥읍)에서 ▲강원국 작가와 김민식 전 피디와 함께하는 ‘북토크’(도서: 말하기의 태도) ▲감성형 독서동 클래스 ▲향기나는 책갈피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남부도서관(도암읍)에서는 ▲플라워 발매프 만들기, 북

부도서관(동강면)에서는 ▲허브 스머지 스틱 클래스 등 총 9개의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lib.go.kr>)를 통해 선착순 115명(팀)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된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9월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감성을 깨우는 이번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흥미를 높이고, 가을을 주제로 한 북크레이션을 통해 책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고흥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 061-830-69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 연금수령액: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 가입혜택: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